

토요휴업일 자녀돌봄 건강가정사업의 사례분석

: ‘통(通)하는 N(network)요일’ 사업을 중심으로

서 지 원(방송대 부교수) · 박 지 선(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이 경 화(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김 유 민 · 변 지 혜(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원)

박 수 영(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주5일수업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가족유대 증진,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함양 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토요휴업일에 대한 활용도가 여전히 낮으며, 특히 토요일에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불균형문제, 활동에 따르는 비용문제, 시설의 부족 등이 제도 내실화의 장애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토요휴업일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에 따른 가족의 인적자원 및 여가의 활용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요구한다. 이에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토요휴업일 중 돌봄 취약가족을 주요사업대상으로 하여 토요휴업일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하는 N요일’ 프로그램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종로구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매달 주차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종로구 지역사회 내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직장인독서모임, 기업봉사단체, 민간봉사단체들과 연계하여 이들의 인적·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구 내 박물관 투어를 통해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더 나아가 한국의 다양한 유물과 유적지 관람으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둘째, 핸드벨(hand-bell) 교육을 실시하여 음악적 감수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연관련 봉사활동의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습득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독서멘토링을 통해 여러 분야의 도서를 읽고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능력의 신장뿐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다양한 직업현장의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 흥미 등을 고려한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돌봄부담 측면에서 보면 연중 실시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은 자녀돌봄 공백의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적 돌봄으로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일-가정 균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게임 등 컴퓨터시간이 감소하는 등 생활시간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 점수도 향상되었다.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토요휴업일 자녀돌봄 지원사업은 주5일 수업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아동청소년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며, 더불어 다문화가족 자녀와의 통합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문화적 체험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토요휴업일 자녀돌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정교한 평가척도의 마련방안을 논의하며,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업의 시행으로 구축된 기존의 지역사회 인프라를 보다 확대연계하여 센터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